

전문건설 “대금 미지급 병폐 해결” 찬 반 종합건설 “하도급 통제 안돼 부실 우려”

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 직불제’ 갈등

공정위, 올 공사 대금 16조원 하청업체 직접 지급제 시행키로

“공사대금을 받은 하도급 업체가 고의 부도나 잠적으로 건설기계 근로자와 노무자가 대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결국 공사 중단을 막기 위해 원도급자가 다시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종합건설업계)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행 발표를 환영한다.”(전문건설업계)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일 올해 공공 발주 공사 대금 16조원을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건설업계가 입장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다. 공정위가 추진하려고 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란 공사, 장비, 임금, 자재 대금을 공공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 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미지급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직접적이면서도 가장 큰 피해를 유발하고, 최근 5년간 전체 하도급별 위반 행위 중 61%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하도급 대금 직불제 추진 협의회를 구축했고, 세부적으로 광역지자체와 공공기관으로 나눠 각각 직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직불제 시행은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중소기업들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건설 관련 업계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건설업계의 맹형인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 위반이며, 원사업자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지역 종합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법령에는 하도급 대금 직불 조건으로 원사업자 부도 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규정됐다”며 “직불제 시행으로 원청업체의 하도급사 통제가 약해지면서 현장내 공정관리 차질 및 부실공사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계는 직불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전문건설업 대표 A씨는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사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면 하도급 대금이 지연되거나 체불되는 등 고질적인 건설현장 병폐가 개선되

거나 사라질 것”이라고 반겼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은 공정위의 직불제를 규탄하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건설노조는 “건설 현장 임금 등 체불의 97%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고 이중 상당수 하청업체가 체불하기 때문인데 정부가 무슨 생각으로 하청사에 대금을 직불하겠다는 것인지 배경이 의문스럽다”며 “하청 건설사가 공사장비 임대료와 임금, 자재대금을 체불하고 도망갈경우 단단계 구조의 맨 끝에 있는 건설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건설노조는 “차라리 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 발주처가 하도급 대금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직접 지불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Table with 2 columns: Indicator (코스피, 코스닥, 금리, 환율) and Value (1970.37, 693.01, 1.47%, 1146.50원)



11일 박철민 DAWOOM사 대표가 광주상의 브리핑룸에서 휴대용 골프공 무게중심 표시기 'Revision'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광주 中企, 골프공 무게중심 표시기 개발

밸런스 찾아 미스샷 줄여... 국제특허 출원·5000개 납품계약

광주지역 한 중소기업이 창업지원기관과 연계해 ‘휴대용 골프공 무게중심 표시기’를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광주지식재산센터와 조선대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센터장 정명수), DAWOOM사(대표 박철민) 등은 11일 오전 광주상공회의소 브리핑룸에서 상품 설명회를 가졌다. 특수용역으로 골프공의 무게중심을 찾아 마감할 수 있도록 한 휴대용 장치다. 박철민 DAWOOM사 대표는 “골프공이 무거운 쪽으로 휘어지는 성질을 이용해 무거운 부분을 앞으로 향하게 하면 거리와 방향이 좋아진다”며 “소금물에 공을 띄우면 가벼운 쪽이 물 위로 뜨지만 이 방식은 너무 번거롭다. 새로운 장치는 골프공의 무게중심을 쉽게 찾을 수 있는 휴대용 장치”라고 말했다.

DAWOOM사는 휴대용 골프공 밸런스 표시장치의 국제특허(PCT) 출원과 함께 제품을 출시해 5000개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또 일본과 미국 등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해외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광주시민발명대회 대상을 수상해 아이디어와 상품성을 인정받았다. 이번 사업은 조선대학교 스포츠산업일자리지원센터와 광주지식재산센터 등이 창업지원사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힌다. 박 대표는 “광주지식센터와 조선대 창업지원센터가 통해 얻은 가장 큰 정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실용성이 있는 사업이면 언제든지 구체화하고 상품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강조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구직자 입사 희망기업 ‘삼성’ 보다 ‘현대차’

선호도 1위...삼성 7년만에 2위로

현대자동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대학생 및 구직자들의 입사 선호도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7년간 지기던 영광을 현대차에 내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 대표 이정근)은 대학생 및 구직자 1천497명을 대상으로 ‘가장 입사하고 싶은 대기업’을 조사한 결과 현대차가 14.4%로 1위를 차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조사(6.3%)보다 무려 8.1%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현대차에 이어 지난 7년간 1위였던 삼성전자(14.1%)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고 한국전력공사(5.5%)가 3위였다. 이어 CJ제일제당(4.9%), LG화학(2.4%), 기아자동차(2.4%), 한국가스공사(2.1%), 대한항공(1.9%), 한국수력원자력(1.9%), LG전자(1.7%) 등이 톱10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입사하고 싶은 이유를 기업별로 살펴보면 현대차, 삼성전자, LG화학, 기아자동차, 대한항공을 택한 이들은 ‘높은 연봉’을 첫 번째로 꼽았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년보장 등 안정성’, CJ제일제당은 ‘의료, 육아 등 사내복지 및 복리후생’, LG전자는 ‘대외적 평판 등 기업 이미지’와 ‘정시퇴근 등 근무환경, 조직문화’를 선택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배꽃 수분 일손 돕기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11일 ‘범농협 영농지원 발대식’을 하고 임직원 100여명이 나주시 팽산동 관 하수원에서 배꽃 수분 작업을 도왔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금호고속, 업계 첫 비상자동제동장치 도입

졸음운전 대비 추돌 방지 시스템...5월 첫 운행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은 업계 최초로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 Advanced Emergency Braking System)를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비상자동제동장치란 급제동 상황이 감지될 경우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장치로, 졸음운전 등 위험사안에 대비한 새로운 안전장비로 주목받고 있다. 전방의 레이더 신호와 감지카메라를 통

한 차선이탈경보기능(LDWS : Lane Departure Warning System)이 포함돼 전방추돌 등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대형승합차, 화물차 등에 의무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이 장치의 성능, 가격, 안정성 등이 교통업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는 위험 발생 때 소리로 위험을 알

리는 제품이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정도지만, 사업을 차입계에서 비상자동제동장치 도입은 금호고속이 처음이다. 이번에 금호고속이 도입하는 자동제동장치의 가격은 대당 400만원 중반대(부가세 포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고속 관계자는 “발주한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버스 2대가 5월 출고될 예정이다”며 “장비 장착이 안전운행으로 이어지면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조용진 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취임

조용진<사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이 11일 취임식을 갖고 광산업 육성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제5대에 이어 2연임한 조 부회장은 취임사에서 “지난 3년간 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계획들이 실현돼 소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3년간 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광산업 육성지원 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단계별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등 특단의 경영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전국적인 회원사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관운영의 독립성을 확고히 해 한국의 광산업 육성 전종의 중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내의 LED 보급 확산을 위한 지자체별 민간투자사업 수입 확대와 국내외 마케팅 지원 활성화를 통해 사무국 100% 자립화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을 포함해 회원을 전국 500여개사로 확대하는 등 한국 광산업을 대표하는 민간사업자 단체로서 진흥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광주시 공보관과 환경녹지국장, 자치행정국장,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상근부회장 임기는 3년이다. /김대성기자bigkim@



Advertisement for Danpoongmall featuring various products like honey, blueberries, and other goods. Includes text: '새봄맛이를 위한 건강한 농특산물 구입은 단풍미인쇼핑몰에서~' and '단풍미인쇼핑몰은 정읍시에서 100% 품질을 보증합니다.'